

2006. 8. 30

# 미국여성연구협의회

(National Council for Research on Women, NCRW)

김영혜

본원 연구위원  
 02-3156-7164  
 yhkim@kwdi.re.kr

## 미국 내 여성관련 연구, 옹호, 정책연구기관들의 네트워크

미국 여성연구협의회 (NCRW)는 미국내 100여개의 연구, 옹호, 정책연구기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기관으로서 여성의 보다 균등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여성과 여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는 네트워크 기관의 자원들을 활용한다. 1981년 설립된 NCRW는 미국 내 그리고 범세계적으로 모든 부문에 여성의 리더십을 증진시키고 차세대 여성지도자의 발전을 권장하고자 세대, 인종, 민족, 국가, 성적 취향의 차이를 넘어서서 여성간의 인권, 국제협력과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NCRW는 국내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시각에서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며, 협의회 회원의 2/3는 대학소속 기관들이며 그 나머지는 정책, 옹호, 교육 및 양성평등 연대기구들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Linda G. Basch 회장(인류학박사, 전 맨해탄 칼리지 예술과학원장)을 비롯하여 대학교의 학장, 여성연구원장 등으로 구성된 20명의 이사와 10여명의 연구직원으로 구성되며, 연구 활동은 50여개의 미국 내 기업 재단과 대기업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또한 다양성을 구축하고 여성의 리더십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 연구활동을 중요시하는 기업의 지도자들과의 네트워크인 기업 서클(Corporate Circle) 및 양성평등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대학교의 총장들과의 네트워크인 총장 서클(Presidents Circle)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서클은 여성, 가족,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업지도자와 학술계 지도자들을 한데 모아 근로자들의 인구학적 변화 및 임금균등, 근로와 가족 이슈, 다양성, 리더십 등의 이슈에 관한 아젠다를 촉진하고 관점을 확대하고자 하며, NCRW의 회원센터와 적절한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내 대학교 총장들의 네트워크인 총장 서클은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을 포함하는 기업서클 회원의 여성 지도자와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장이 되며,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 자

원 및 네트워크에 동참할 수 있으며, 현안문제와 관련한 연구, 분석, 행동을 지원함으로써 대중의 인식을 고양시키고, 경제적 안정·인권·고등교육에서의 다양성 등의 긴급 이슈를 역설하는 실무그룹에 참여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 ‘행동을 위한 연구’ 클리어링하우스 운영

NCRW는 ‘행동을 위한 연구’ (Research for Action)를 기치로 내걸고 현장종사자의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에게는 정책입안자, 서비스제공자, 교육자, 행동가들의 요구를 역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자와 현장종사자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간행물, 회의, 미디어 확산, 특정 주제관련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미디어로 하여금 여성과 여아 관련 이슈들을 제기하도록 촉구하며, 지역사회에서 관련 이슈에 대하여 생산적인 토론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행동을 위한 연구’의 사례로는 최근에 발간된 보고서 *Taxes Are A Women's Issue: Reframing the Debate* (Feminist Press, 2006. 4)가 있다. 이 보고서는 여성들에게 현행 세금정책, 그리고 세금제도가 여성자신과 가족의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세금과 삶의 질 간의 연계성을 제시함으로써 세금제도와 여성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다. 또한 금년 6월에는 ‘고등교육에서의 리더십과 다양성에 관한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포드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 발표로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고등교육에서의 리더십이 교수, 직원, 학생, 교과목 간의 인종과 젠더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굿 리더십 모델, 혁신 사례, 제도적 변화전략 등을 개발하여 다양한 인구집단에게 부응할 수 있는 기관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전략, 가치,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행동을 위한 연구’ 클리어링하우스는 NCRW와 회원기관이 발행한 보고서, 팩트시트, 회의자료집의 저장고이다. 이 저장고는 공공여론 및 정책에 관한 여성연구의 영향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각 주제별로 여성연구 기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정보저장고는 ‘여성과 세금’ ‘교육’ ‘건강’ ‘근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전쟁’ ‘여성의 권리’ ‘여성의 정치참여’ ‘여성과 대법원’을 주제로 하여 각 기관별로 진행되는 최근 소식과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NCRW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지위기구 NGO로서 UNDP, UNDAW, 국제여성트리뷴센터(IWTC)와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여성 NGO 단체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교육과 개발간의 연계망을 구축한다. 매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참가하여 NCRW의 활동을 보고하며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6년 3월 발간한 *Gains and Gaps: A Look at the World's Women*는 1995년 제 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10년간의 진전사항을 개괄한 전 세계 여성지위 현황보고서이다.

NCRW는 1997년 이후로 매년 연례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슈 영역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함으로써 학자와 행동가들간의 논의의 장을 펼쳐왔다. 2006년 연례회의는 *Working Our Network*,

*Networking Our Work* (2006. 6.24-25, 뉴욕 페이스 대학교)를 주제로 한 회원기관들만의 회의로서 "페미니스트 연구를 위한 재정지원", "미래 구축: 인종과 세대를 뛰어 넘은 기회 및 활동", "회원기관 간의 연대 강화", "미디어의 중요성: TV와 라디오 워크숍"을 소주제로 한 패널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여성연구기관 국제디렉토리 운영

NCRW는 80여 개국 300여개 기관을 포함하는 여성연구기관 목록을 10여년 간에 걸쳐 축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기관 목록은 유엔 및 NGO 등의 관심 영역에 따른 협력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NCRW는 여성연구기관 국제디렉토리를 개발하여 웹 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명단을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색인화된 디렉토리는 각 기관의 프로젝트, 간행물, 데이터베이스, 회의 및 펠로우십, 조직 및 연락사항 등을 포함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디렉토리에 신규등록 및 업데이트를 원하는 여성관련 연구 및 정책기관 등은 NCRW 웹사이트의 질문지를 기입하여 응답 자료를 11 Hanover Square, New York, NY 10005 혹은 팩스 (212) 785-7350 혹은 이메일 [ncrw@ncrw.org](mailto:ncrw@ncrw.org)로 보내면 된다.

NCRW 웹사이트는 100여개의 회원기관 목록을 제공하고 있어 각 기관별로 여성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http://www.ncrw.org/about/centers.htm>) 또한 이 목록은 전문영역별 인덱스에 따라 링크가 되어 인덱스별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http://www.ncrw.org/resources/areas\\_expertise.htm](http://www.ncrw.org/resources/areas_expertise.htm))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학 석·박사 과정 목록을 포함하고 있어서 각 기관의 웹으로 연결되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웹사이트의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http://www.smith.edu/wst/gradlinks.html>)